



23일 광주·전남농민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쌀 목표가 23만원 보장을 요구하며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 광장에 벼 가마를 쌓아올리고 아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농사는 풍년... 농심은 흉년

생산 급증 쌀·배추 등 가격 폭락 악순환  
농민단체 쌀값 생산비 보장 벼 야적시위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조속 시행 촉구

쌀 등 곡물과 배추 같은 채소류가 '풍년'이 들어도 정작 농심은 가격 폭락과 수매 걱정으로 '흉년'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벼농사의 경우 대풍이 기대되지만 농민들은 벌써부터 수확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고심하고 있으며 낮은 수매가가 성년 농민단체는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벼 야적시위에 나섰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 벼 생산량은 지난해의 70만405t보다 13만4200t이 증가한 83만46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현재 90%의 벼 수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비축 매입량은 40kg 들이 포대비는 8만5382t, 산물벼

는 9614t이며 매입단가는 1등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000원이 오른 5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추진하는 자체 매입량(44만7000t)이 한정되어 있고 가격도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RPC 보다 높아 농민들이 물리는 바람에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3일 오전 전남도청 앞 광장에 40kg 벼가마 2000개 분량을 쌓아올리고 정부의 쌀값 보장을 촉구했다.

농민회 등이 요구하는 올해 쌀(80kg) 목표가격은 23만원선.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17만3083원은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매가격을 농가 현실을 반영해 23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매년 반복되는 가격 논쟁에서 벗어나려면 현행 공공비축 수매제를 폐기하고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배추 농가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작황이 좋고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와는 달리 가격 폭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의 가을배추 생산량은 155만t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났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거래되는 배추 1통 가격은 3000원선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가까웠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를 빼대려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쌀·보리·콩·옥수수 같은 곡물류와 배추·대파·고

추·마늘 같은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했다. 이는 배추·무·마늘·고추·양파·대파·당근·감자 등 8개 품목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10%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수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일보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8일 담양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수시 2차모집

2013년 11월11일(월)~15일(금) 정시모집

2013년 12월19일(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 순천만박람회장 '국가정원' 지정 탄력

산림청 법령 개정 나서...정부예산 지원 사후활용 도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해져 박람회장을 활용해 순천만 일대를 국내 정원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후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산림청은 "국가정원 관련법이 없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내년께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정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만들어 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선다.

또 이 개정안에는 박람회장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담기게 될 예정이다. 현재 이 법률에는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학교수목원만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고, 정원에 대한 법률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순천시도 박람회장 국가정원 지정 후 세계 유명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2년에 한 번 정원박람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람회장이 열리지 않는 해에는 국내 작가들의

정원을 선보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또 체계적인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 순천만정원관리사업소(가칭·60~70명 규모) 설립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논의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용역에 따르면 박람회장 재개장을 통한 입장료, 임대사업 등의 수익은 113억원에 달해 후자 사후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승효상 이로재 대표

## "한국사회 갈등·반목은 잘못된 건축서 기인"

'빈자의 미학'의 건축가 승효상(61·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 이로재 대표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본인의 철학을 역설했다. 건축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오늘날 한국의 건축 현실을 단호하게 사이비며, 최악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2면>

그는 건축을 시인이 시를 짓고, 어머니가 밥을 짓는 것처럼 땅과 자연이라는 재료에 사상과 이념을 부여해 삶을 새기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가 만든 건축물들이 인간의 사유와 인문학적 토대에 바탕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승대표는 22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갈등

과 반목이 반복되는 것은 잘못된 건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서구에서는 수십 년 전 폐기한 모더니즘 건축 마스터플랜을 도입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를 만들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해야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사회를 강요한다는 것이 승대표의 말이다.

"우리는 도시를 너무 쉽게 만들었다. 분당은 5년 만에 50만명이 사는

도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날 국내 어느 신도시를 가더라도 이제는 개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영남인지, 호남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승대표는 건축은 '터무니'라고 강조했다. 터에 인문학적 환경을 고려한 삶을 새기는 거라는 의미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산을 깎고 축대를 세워 획일화된 아파트를 짓는 터무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봉건주의적 건축이 아니라 터무니에 입각해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다원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건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 "5년내 자치경찰 도입·자치구의회 폐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3일 "5년 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날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심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세계 22개 국가에서 현재 시행 중으로, 시행의 장·단점을 보고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새 정부 임기 5년 이내 결정할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 계획을 보고하자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 자

치경찰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생활안전 문제 해결에는 지방경찰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심 위원장은 전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자치구·군의 기능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의회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www.황칠나라.kr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초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쌍촌점 광주 서구 쌍촌동 948-33 062-375-8233  
용봉점 광주 북구 용봉동 740-1 062-418-8788

여수점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화순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42-8 061-375-7188

